

롯데 환원금, 위기청소년 지원 활용

청소년 회복 시설 등 100억 광주시·가정법원 업무협약 청년사업 10년간 3억씩 지원

광주시가 4일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환원금을 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은 10년간 모두 130억원으로 위기청소년에게 100억원, 청년에게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가정법원,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지역 전반의 여력을 수렴,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청소년육성기금 내 위기청소년지원기금 계정을 별도로

로 마련·관리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1호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해 주거·상담·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여기에 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에 1개소를 개원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가정법원은 4일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재운 광주가정법원장,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앞으로 두 기관이 매년 발생하는 4800여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육, 상담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

하겠다고 내용이 담겼다.

공동협력을 위해 광주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 ▲위기청소년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광주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기관 지정 ▲후견복지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각각 시행한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매년 2200여 명의 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고 200여 명이 1호 감호처분을 받고 있지만, 광주에는 1호 처분 보호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청소년을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에 위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는 결코 맞지 않다"며 "시에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청소년이 사회의 귀한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유통 생수 29개 제품 모두 안전

광주시내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의 수질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먹는 샘물에 대해 상반기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샘물의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마다 먹는샘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광주 지역에서 유통중인 먹는샘물 29개 제품, 5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의 원인인 살모넬라균, 샘플용기 소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브롬산염, 페트병 제조 원료인 안티몬을 포함해 51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광주지부 개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4일 오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문을 열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제공>

광산구 9번째 주민 추천 동장 탄생

우산동·도산동 주민이 선출

광주 광산구가 3년전 전국 최초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한 이후 최근 9번째 주민추천 동장을 임명했다. 주민대표에게 동장 추천권한을 줌으로써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수완동장을 첫 주민추천을 통해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우산동과 도산동의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임명된 동장들의 경우 '동장 주민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8번째와 9번째 동장이다.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장 주민추천제'는 3년전 민형배 구정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며, 구정장의 인사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특히 주민추천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전 각 동마다 200여명의 주민투표단을 공개 모집하고 동장 후보자들이 직접 공약을 발표 후 관련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주민자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번 우산동과 도산동의 경우도 동장 후

보로 나선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동운계획을 각자 발표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공직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는 자치역량을 높여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주민추천을 거쳐 임명된 조덕형 도산동장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행복마을을 공약했다"며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섬기는 자세로 희망을 나누는 도산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주안 우산동장도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공동체 구현을 강조했다"며 "지역 자원을 연계한 복지망을 촘촘히 구성하여 더불어 사는 우산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취임 1개월 맞은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개통 13년 노하우 2호선에 반영 설계부터 안전시스템 구축 만전

김성호(63)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났다. 1974년 철도청에 입사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거친 그는 40여년을 '철도'만을 바라본 관련 분야 전문가다. 오랜 현장실무 경험과 함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올해로 개통 13년을 맞아 시민의 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혁신 경영의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 사장을 만났다.



- 고객만족도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출하겠다.
- 수송분담률 향상, 재정 건전화 등 경영혁신 방안은.
▲공사의 경우로는 구도심을 통과하는 단선노선 운영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무인승차를 증가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앞으로 강력한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 직원 1인당 1명의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1+1세일즈', 신규광고 매체 다양화, 사내벤처 운영 등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겠다.
- 2호선 건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내년 2호선 착공이 시작되는 등 건설 본격화를 앞두고 공사도 준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1호선을 직접 운영하며 쌓아온 광주도시철도 운영 노하우가 2호선 건설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완전 무인운전으로 운영되는 2호선 특성상 안전성 확보와 복합공정 간의 인터페이스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와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 간 시스템엔지니어링(SE) 협약체결을 통해 2호선 건설 설계부터 분야별 활동을 추진,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광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의 설레는 초심을 마지막 인사로 드리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겠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다음은 일문일답.
- 광주도시철도공사 제6대 사장으로 취임한지 1개월이 지났다.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광주도시철도의 사장이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도량삼아 보다 큰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던 1개월이었다.
- 공사 사장으로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았다.
▲1974년 첫 직장으로 철도청을 택한 이래 43년간 인생의 중심에 '철도'를 두고 경험을 쌓아오며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안전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용산차량기지를 비롯한 구역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각 역할을 익혀두는 것이 사장이로서 제가 해야 할 업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해 현장부터 방문했다.
- 임기 동안의 공사 운영 방향은.
▲공사의 운영방향을 '시민의 행복 한 삶과 함께하는 광주도시철도'로 설정하고, '신뢰받는 안전도시철도', '고객감동 행복도시철도', '건전재정 자립'을 핵심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정비 인프라 확충
사내 벤처 등 수익 다각화
43년 현장 경험 쏟을 것

도시철도, '성과창출 미래도시철도'의 4가지 핵심 전략을 실천, 공사의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 세월호 사고, 서울 구의역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있어 '안전'은 조직의 생명력에도 같다. 우선 예방 중심의 전사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정비 체계 고도화와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 노동 복지센터 강화 필요" 광주시 노동정책 토론회

광주시가 4일 '광주시 노동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광주시와 시의회 공동 주최로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5층)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센터 등 노동단체 관계자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준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이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과 비전',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노동행정의 확대와 전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보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진행으로 박병규 전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전병숙 전남대 경영

학부 교수, 최정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부장, 조용근 광주지역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회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문준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노동 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자치구 행정조직상 노동전담팀 구성, 노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며 "노동정책 민간 확산을 위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의 전면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지방 노동행정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중앙과 지방 간 지방분권화가 점차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노동행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광주시 자체적으로 노동 관련 센터의 통합 등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취약계층 등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지역 12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대, 호남대 등 4개 대학과 광주인력개발원, 폴리텍 V 대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창업 및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정노동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